

라운아띠 필리핀 팀 MARCH REPORT

부제 : 안녕하세요 필리핀!



목차

I 소개

1. 우리의 3월 일정
2. 라온아띠
3. 우리의 친구들

II 우리의 삶의 터전

1. 산파블로 YMCA

- 1) 산파블로 YMCA 소개
- 2) 환영파티
- 3) 파트너십:

-City Hall

-Canossa College

-교육부 & Barangay 6-D 마을회관

-C. M. Azcarate Elementary School

4) 바탕와이

2. 발디딤

1) 우리 집 소개

2) 옆집가족

(Kuya Alan & Ate Alma' s Family)

3) Sampaloc lake

III 우리의 일터

1. Baloc Community

2. Bagong Pook Elementary School

IV 필리핀 바라보기

의주의 하루

V 한 달을 돌아보며

소개합니다.

- ✓ 우리의 3월 일정
- ✓ 라운아띠 팀 소개
- ✓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3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필리핀 도착 -마닐라 YMCA	8 -산파블로 YMCA 도착 -환영파티	9 -카노사 컬리지 -바공포옥 초등학교 -발록 커뮤니티 -야시장 구경	10 -오리엔테이션
11	12 -시청 -카노사 컬리지 -바랑가이 6-D 마을회관 -산파블로 시티 센트럴 스쿨	13 -시엠아즈가라데 초등학교	14 -시엠아즈가라데 레크레이션활동 -발록 커뮤니티 -쓰레기 산	15 -필리핀 YMCA 오리엔테이션	16 -바공포옥 초등학교 피딩 프로그램 -생일파티 참석	17 -삼팔록 호수 산책 -농구배우기
18 -노래배우기 (Pinoy ako) -바랑가이 6-D 마을회관	19 -발록 커뮤니티 -영어수업	20 -영어수업	21 -YMCA에서 지나기	22 -바공포옥 초등학교 피딩 프로그램 -발록 커뮤니티	23 -드림스투어 오픈! -생일파티 참석	24
25 -한국음식 교류	26	27 -시엠아즈가라데 초등학교 Recognition (시상식)	28 -바공포옥 초등학교 Recognition -영어수업	29 -바공포옥 초등학교 졸업식&파티	30 -영어수업	31

라운 아띠 필리핀 팀



이강호(Paul) : 영보이, 프레쉬 보이, 굿 보이라고 불린다. 이 모든 별명들은 대부분 큰엄마가 갖다준 별칭이다. 제일 늙은 오빠에게 왜 영보이라고 하는지 다들 공감한다. 제일 초딩 같기 때문! 잠 잘 때를 제외하곤 삶이 그냥 유치뽕짝이다. 라고 말하면 빼질거다. 웃음이 너무 해맑아서 그렇다. 그래서인지 아이들도 영보이를 제일 좋아하고 가끔 팀원들의 질투를 사곤 한다. 생선을 못 먹는 것이 유일한 단점!

김시연(Siyeon) : 생선. 김여사. 잇썬(의주)가 제일 좋아하는 별칭은 생선이다. 그냥 생선을 닮았기 때문이다. 우리 김여사는 바퀴벌레를 제일 무서워한다. 특히 필리핀은 날으는 바퀴벌레가 생선을 잡아먹기로 유명하다. 그래서 해리포터가 짠 하고 나타나서 바퀴벌레를 무찌르곤 한다. 예쁜 별명도 있다. 필리핀에서 한창 유행인 꽃보다 남자의 '금잔디' 를 패러디한 '공잔디' . 공잔디의 활약이 기대된다.



송정원(Antonio) : 해리포터. 옆집 아이들이 지어준 별명이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필리핀에서 얼굴이 좀 통하고(?) 있다. 가방에 온갖 물건을 넣고 다녀서 '도라에몽' 으로 불리기도 하며 '짬타이거' 이기도 하다. 현지 입맛에 가장 적응을 잘해서 우리가 남긴(?)음식을 모두 처리해주는 고마운 포터. 가끔 바퀴벌레를 무찔러주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포터는 생선이 제일 무섭다.



신의주(Theresa) : 이나이(어머니). 국내훈련 때부터 따라다니는 별명이다. 한국 이름 때문에 붙은 '잇썬' 라는 귀여운 별명도 있지만 생선 혼자만 부르고 있다. 평소에는 귀여운 척이 엄청나지만 이따금씩 사색에 잠겨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들곤 한다. 그녀를 둘러싼 미스터리 두 가지. 그녀가 틀니를 사용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발록 캠퍼스에 그녀를 닮은 개가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믿거나 말거나...

이화영(Jessi) : 물소빠용. 한국 발음이 어려워 빠용이 되었다. 물소빠용은 분소(막내)와 빠용(우산)의 합성어. 우리 빠용이는 유일하게 '배타적 빠용지역(EUZ, Exclusive Umbrella Zone)' 을 갖고 있다. 빠용이 훑고 간 자리엔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그녀만의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그녀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제 카메라 보셨어요?" 라는 그녀의 물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Raonatti 7th Philippines Team

우리의 친구들



Mommy Kristy

우리엄마! 현지코디네이터이자 SPC YMCA 사무총장님. 야채를 싫어하고 가끔 덜렁대시지만 그녀의 친화력과 열정만큼은 정말 와따봉!



Neighborhood Family

한 지붕 가족인 우리의 활력소! 옆집 Kuya Alan네 9식구!!

Batang (Youth) Y

Bernie, Umpz, Jomark, Jeffry 우리의 해피바이러스인 친구들!



Ate Lota

우리의 진정한 조력자인 큰누나

Jek

Mommy Kristy의 딸이자 우리 막내 동생. 현지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많이 도와준다. 마미와 모든 게 똑같다.



Mommy Emy

우리 큰엄마! 큰엄마네 집에서 같이 살게 되면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노래를 매일 부르게 되었다.

Sir. Chris

영어&타갈로그 선생님.
그의 재능은 언리미티드, 언빌리버블!

우리의 삶의 터전

✓ 산파블로 YMCA

- 산파블로 YMCA 소개

- 환영 파티

- 파트너십: 시티홀, 카노사컬리지,
교육부, 바랑가이6-D마을회관
시엠아즈가라데 초등학교

- 바탕와이

✓ 발디딤

- 우리 집 소개

- 옆집 가족

- Sampaloc Lake



산파블로 YMCA

우리가 집 다음으로 자주 가는 이 곳은 바로 산파블로 YMCA입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PISO MULASA PUSO(마음에서 나오는 1페소)' 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MCA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1페소(약 30원)를 기부하면 이 1페소가 모여서 좋은 일에 쓰인다고 하니 과자 사먹고 남은 1페소는 피소물라사 통에 팅그람!

이 곳의 주요 수입은 농구장 대여와 숙소 대여, 레크리에이션 센터 운영(수영, 가라데 강습)에서 나옵니다. 이 곳에 있으면 하루종일 농구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가라데를 배우러 오는 귀여운 소년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주요 활동은 바로 바탕와이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산파블로시티의 청소년들이 YMCA에서 일을 하면서 숙식과 학습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외에도 YMCA건물 밖에서 진행되는 활동이 있습니다. 아동 교육, 성장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읽기, 수학 교육, 피딩(Feeding), 레크레이션 활동 등을 진행합니다. 또한 커뮤니티 조직 사업의 일환으로 LIVELY HOOD(생계, 살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록 커뮤니티에서 바나나칩 만드는 법을 교육하고, 무료 제빵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이 사업의 일환입니다.

앞으로 이곳에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됩니다^_^!



환영파티

드디어 산파블로시티에 도착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니 집에서 5시 까지 쉬라고 하십니다. 슬슬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러 산파블로YMCA에 도착 하니 무언가 이상합니다. '뭐지?' 하고 보려고 하니 잘생긴 필리핀 청년들이 우리가 볼 수 없도록 온몸으로 우리를 막습니다.

'Jessi, come here!' 뭐 도와달라고 부르나?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사람들이 두 줄로 나란히 서 있고 멋진 필리핀 청년이 저를 에스코트 합니다. 그리곤 예쁜 등과 장미꽃을 건넵니다. 마치 레드카펫을 걷는 영화배우가 된 기분입니다. 하나의 등불은 한 사람의 영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다섯 개의 등은 우리의 영혼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소개가 끝난 뒤, 우리 또래의 청년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마부하이 산파블로(Mabuhay SanPablo: 산파블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를 외치며 몸이 들썩거리는 춤을 춥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흥얼거렸습니다. 처음 보는 우리를 위해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한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한편으론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해온 것이 없어 민망합니다.



테이블 한 쪽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저기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계란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접시 한 가득 계란을 잔뜩 담습니다. 이 음식의 이름은 '설티드 에그' 입니다. 말 그대로 엄청 짠 계란 샐러드입니다. 우리는 이 설티드 에그를 잔뜩 퍼왔다가 사양문화(음식을 남기지 않는 문화) 때문에 남기지도 못하고 꾸역꾸역 먹고 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책이 보입니다. 아니 저건 한국의 노래방에서 볼 수 있는 노래방책? 사람들이 열심히 번호를 눌러가며 예약합니다. 망고주스를 술을 대신하여 노래를 부릅니다. 어떻게 술도 안마시고 노래를 부르시? 하지만 용기 내어 저와 정원오빠도 한 곡 불렀습니다.

제가 부른 곡은 "You raise me up"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다가와 말을 겁니다. K팝에 대해서 묻고 사진을 같이 찍습니다. 이 곳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적극적인 듯 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따갈로그어로 대화를 시도합니다.

'아농 팡알란 모?(Anong Pangalan mo?: 이름이 무엇입니까?)'

'일랑 따온 까나?(Ilang Taon Ka na?: 몇 살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 하지 않은 것이 끝내 아쉽습니다. 우리가 좀 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사실 이런 성대한 환영은 기대하지 못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뛰어난 능력을 지닌 것도 잘난 것도 아닌데 이러한 환영에 부담감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부담감으로서만 그칠게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감 또한 느꼈습니다. 환영 해주신 산파블로 YMCA 감사합니다!



City Hall

주민이 만드는 마을 커뮤니티의 중심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시청에서 마을조회가 열립니다. 마미 크리스티는 많은 마을 관련자분들에게 우리를 소개하고자 하였고 이에 우리도 조회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경찰, 마을신문 기자, 다양한 마을주민분들을 만났습니다. 전날 밤새 외운 필리핀 국가를 제대로 못 불러 아쉬움이 남았지만 다 같이 모여 마을에 대한 고민을 하고 행사에 같이 참여하는 개방적인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날은 산파블로시티의 대표로 TV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우수한 카노사 컬리지 학생들의 공연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을신문 기자분과 인터뷰를 했고 우리에게 대한 소개가 마을신문에 실릴 예정입니다. 라온아피에 대한 큰 관심을 느낄 수 있었고 많은 관계자들께서 우리 활동을 든든히 지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긴 날이었습니다.

Canossa College

Barangay 6-D 지역 지성의 요람

설립자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카노사 컬리지(Canossa College)는 초등·고등·대학 사립학교입니다. 바라가이(Barangay) 6-D지역에 위치한 카노사 컬리지는 산파블로 시티 전체에서도 인정받는 수준 높은 학교입니다. 학교 내에서는 오직 영어만 사용해야 하는데 교육에 있어 매우 엄격해 보입니다. 학교를 방문했을 때 교장선생님과 수녀님께 직접 학교에 대한 소개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SMART라고 하는 교육 목표였습니다.

- S - Sharer of God' s love
- M - Man and woman of faith
- A - Academically competent learner
- R - Responsible agent of social transformation
- T - True brother / sister of the poor



학업 능력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이곳의 교육목표를 보며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교육부 & Barangay 6-D 마을회관

교육부“San Pablo City의 ALS 와 우리의 ALS“

San Pablo City Central School 안에 위치한 교육부에는 미용, 용접, 제빵, 웨딩 등 다양한 ALS(Alternative Learning System)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정규수업을 받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을 기획, 진행하여 그들의 삶의 진정한 서포터가 되는 곳입니다. 현재 수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자격테스트를 통과하여 그들의 삶의 직, 간접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Baloc Community에서 ALS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곳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그들의 요구에 대해 많은 조언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Barangay 6-D 마을회관“마을 만들기의 중심”

Barangay 6-D 지역의 치안을 위한 순찰대, 아이들의 놀이터, 청년들을 위한 농구코트,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 등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마을회관 입니다. 이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덕분에 Baloc으로 가는 길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여성조직이 새로이 탄생하여 임원진이 선출되는 현장에 초대받는 영광도 주셨습니다. 이러한 도움에 보답하고 마을 주민의 일원이 되고자 저희는 앞으로 컴퓨터 교육 보조교사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C. M. Azcarate Elementary School

밝고 명량한 지역 어린이들의 학교

바공포옥(Bagong Pook) 초등학교와 함께 'Barangay 6-D'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로서 옆집 아이들 4명이 다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15개나 되는 교실을 돌아다니며 목청 높여 우리를 소개하기도 했고, 아이들과 함께 한국 전통(?)놀이인 "얼음 땡" 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를 하면서 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숙소와 "매우"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놀이로 친숙해진 아이들이 가끔씩 찾아와 우리에게 말을 걸고는 합니다. 우리는 바공포옥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이곳의 Recognition(시상식)에 초대받아 참석을 했습니다. 다섯 명이 열심히 준비한 "Pinoy Ako*" 퍼포먼스(춤)만 할 것이라 생각한 저희는 단상에 올라가 시상을 하고 유명인사라도 된 듯이 사람들과 사진을 찍어야 했습니다. 훈련에서 배운 "주변인 되기" 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을 환영해주고 배려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더 자발적으로 활동하자고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이 곳에서 Summer School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는 없지만 방학 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 Pinoy Ako는 '나는 필리핀 사람입니다' 라는 뜻의 유명한 노래

산파블로 시티의 F4 바탕와이



제프리(JEFFRY) 버니(BERNIE) 조마크(JOMAC) 움스(UMPZ)

Bata: child, youth + YMCA =
Batang-Y*

*바탕와이(Batang-Y) 는 산파블로의 청소년 YMCA입니다.

바탕와이의 역사

크리스티(현 산파블로 YMCA 총장)가 부임하던 2007년 YMCA 근처에서 음료수를 파는 아이들을 발견합니다. 이 아이들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병을 줍거나 음료수를 팔아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YMCA에서 음식을 얻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훔쳐가기도 했습니다. 당시 크리스티가 이 아이들의 숙식을 해결하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그 대신에 이 아이들이 YMCA에서 일을 돕도록 한 것이 바탕와이의 시작이었습니다.

현재의 바탕와이는 알스(ALS)의 학생입니다. 산파블로 YMCA에서는 "STAY-IN" 바탕와이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현재의 바탕와이 멤버는 이 때 가입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바탕와이 멤버들은 YMCA의 일을 도우며 숙식을 해결하고 공부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농구장을 관리하고 건물을 청소하는 등의 일을 합니다. 이들은 이미 ALS의 시험을 치루었고 4월 말 시험결과에 따라 공부를 더 하거나 대학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후에 대학을 가게 되면 YMCA의 장학생이 되어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

처음 만났던 바탕와이. 그들은 우리와 친해지고자 노력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안산에서 훈련을 받을 때에도 안산의 청소년 YMCA 친구들과 친해지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고 그 당시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적극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말을 할 때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탕와이에게 가족 이야기를 묻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그들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탕와이와 많은 활동을 하고자 하면 그들이 그들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조심과 행동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를 생각해보았고 우리에게 '행동' 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친해지기1 농구배우기

"What's your hobby?", "Basket ball" 바탕와이에게 취미를 물어보면 '농구' 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농구를 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함께 경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농구를 배우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농구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했고 바탕와이는 어느새 우리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친해지기2 일 돕기

바탕와이는 YMCA에서 일을 하면서 숙식을 해결합니다. 우리는 이 곳에서 자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일을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의 1/10도 되지 않지만 일을 도우며 조금 더 친해지고자 했습니다.

친해지기3 같이 살기

우리는 5박 6일동안 YMCA 건물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는 달랐습니다. 짙짙 나오는 샤워기 물이 아니라 받아놓은 물을 퍼서 씻어야 했으며 밤 늦게까지 하는 농구 소리와 옆 건물 공사장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곳에서 지낸 5일은 바탕와이의 삶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계기를 통해 그들과 대화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피노이 아코 (PINOY AKO : 나는 필리핀 사람입니다)

우리는 시엠아스가라데 초등학교(C.M.AZCARATE) 와 바공포 옥 초등학교 (Bagong pook) 졸업식에 초대를 받아 축하 공연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YMCA에서 사는 동안 '피노이 아코'라는 노래와 율동을 배웠습니다. 이 날 만큼 우리는 모두 필리핀 사람이었습니다.



Heaven's Corner, Our Dream Store.

YMCA에 살면서 바탕와이와 우리는 함께 구멍가게를 열었습니다. 우리 가게의 이름은 바로 'Heaven's Corner, Our Dream Store'입니다. 이 곳에서 음식을 사먹으면 마치 천국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가게는 바탕와이의 자립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가게입니다. 그들은 돈을 받지 않고 YMCA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가게 운영을 통해 돈을 벌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시간이 있을 때 함께 스토어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망고주스를 만들고 물건을 팔기도 했습니다. 사실 판 것 보다는 우리가 사 먹은 음식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같이 가게를 보면서도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팔아서 얼마나 벌 수 있을까? 하나의 과자를 팔면 단지 1페소의 이윤이 남습니다. 1페소면 한국 돈으로 30원도 채 되지 않는 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에 약 300페소(한화 약 8000원) 썩을 버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필리핀의 평범한 사람들이 한 달에 보통 5000~8000페소를 번다고 합니다. 이렇기에 하루에 300페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며 이 수입이 바탕와이의 자립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바탕와이와 6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우리는 서로를 더욱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들과 함께 할 많은 활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영도 함께 배우고 6월에 있을 350ppm 캠페인도 함께 준비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들과의 관계가 더욱 기대됩니다!



우리의 러브하우스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앞마당
회의장소



우리의 충견 퍼퓸빌리~



Mommy Emy의 집을 소개합니다~



총체적 난국 우리들의 방



옆집 알마 언니네



빠용에어리어 우리의 거실

Kuya Alan & Ate Alma's Family

About neighbor...

쿠야 알란(Kuya Alan)과 아테 알마(Ate Alma)는 저희와 대문을 함께 쓰는 이웃인 동시에 저희와 띠따에미(Tita Emi)의 생활을 도와주시는 Helper입니다. 지금처럼 이웃으로 생활하기 전에 쿠야알란은 7남매와 함께 대가족을 이끌고 있고, 실직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집을 구하기가 매우 힘드셨다고 합니다, 쿠야알란의 그런 사정을 딱하게 여긴 띠따에미는 직업을 구할 동안 집세를 안받기로 하였고, 대신 홀로 사는 자신의 생활을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띠따에미는 쿠야알란의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웃사촌!

처음 만났을 때는 멀리서 인사만 나누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이들이 제 동생들처럼 가깝게 느껴집니다. 지나가다 한번씩 마주치면 항상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눕니다. 일이 안 풀려서 머리가 복잡하거나, 기분이 울적할 때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하다 보면 어느새 행복해짐을 느낍니다. 소녀시대를 좋아하는 둘째 메이(Mae)에게는 소녀시대 동영상을 보여주고 필리핀 국가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프린트를 하러 갈 때나 꽃 선물을 위해 꽃을 따러 갈 때는 가이드 역할도 해주었고, 꽃 선물로 우리 모두를 감동받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저희의 따갈로그(Tagalog) 선생님이자 현지 적응 가이드며 저희는 아이들의 Playmate입니다. 티없이 밝은 아이들과 한없이 고마운 쿠야알란과 아테 알마가 이제는 단순한 이웃이 아닌 새로운 가족으로 느껴집니다.



아동노동?!

산파블로시티에 처음 도착해서 숙소에서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비교적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착하기까지 기다렸다가 대문을 열어주고 문을 잠그는 아이를 보고 저희는 크게 놀랐습니다.

"저 아이는 지금까지 안자고 문지기 노릇을 하는 건가? 마닐라에서 본 'Give me one dalla' 아이를 만난 것도 우리를 고민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일어나는 아동노동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순히 이웃집에서는 띠따애미(Tita Emi)라는 고용주가 있기 때문에 아동노동의 범주에 속하므로 이는 잘못된 상황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 교육기회 박탈과 불합리한 대우, 건강 문제 등으로 아동노동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그런 문제가 없으므로 이는 잘못된 상황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후 쿠야 알란(Kuya Alan)의 가족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그들 가족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마미크리스티와의 회의를 통해 아이들이 Helper로 일하시는 부모님을 돕겠다고 자발적으로 일하는 것임을 확인하고는 오해를 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남자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등 아동노동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필리핀의 상황에서 앞으로 아동노동에 대한 우리들의 고민은 계속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Sam Paloc Lake

삶의 터전이자 관광지인 이곳에서 우리는..



산파블로시티가 자랑하는 7개의 호수 중에 가장 사람이 붐비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매일 아침 바탕Y와 함께 서로 대충 씻은 모습에 익숙해지며 상쾌하게 이곳에서 조깅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곳이기도 하며 생계를 위한 많은 사람들의 낚시, 양식, 길거리상점들을 통한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호수 한길을 두고 한 쪽에는 살기 힘들 정도의 주거환경을, 반대쪽에는 너무나 좋은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어 심각한 빈부격차를 느꼈습니다.

3월 24일 산파블로시티의 '7 Lakes Runners Club'의 주체로 많은 마을관련단체(경찰, 학생, YMCA 등)들이 모여서 삼팔록(Sam Paloc) 호수 주변 나무심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마을의 많은 주민들이 모여 환경보호운동을 하는 뜻 깊은 활동에 같이 참여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우리의 일터

✓ 말 잘 듣기

✓ 바깥 사람 잘 대우하기



발록 (Baloc)

발록 커뮤니티란?

발록 쓰레기 산은 San pablo city의 모든 쓰레기가 모이는 매립지입니다.

이곳에서는 주민들이 쓰레기를 주워 파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성인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특히 더 위험합니다. 각종 화학 물질로 인해 건강이 위협되는 것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교육에 대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산파블로 YMCA는 지난 라온아피 6 기와 함께 작년 12월부터 이 발록 지역의 커뮤니티 조직에 앞장섰습니다.



쓰레기가 쌓여서 산이 됐다고?

#현장스케치

바람이 부는데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섞여옵니다. 손수건으로 코를 틀어막고 싶지만, 그곳에서 사는 주민들이 우리를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차마 코를 막지 못하고 어색하게 웃음을 짓습니다. 쓰레기에서 흘러나온 물이 개울에 고이고, 그 물로 사람들은 빨래를 하고 밥을 짓습니다. 심지어 개들조차도 피부병에 걸렸는지 털이 듬성듬성 빠져있습니다.

발록 쓰레기 산 주변은 재활용품을 주워서 팔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병 1킬로를 모으면 2페소, 한국 돈으로 60원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쓰레기 산 주민들의 가족은 대체로 대가족입니다. 형제자매가 6~7명이 있다는 것이 별로 놀랍지 않은 곳입니다. 이 많은 아이들은 가장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 못한 채, 한 사람의 노동력이 되어 쓰레기를 주우러 다닙니다.



처음 본 환경, 팀원들의 머리엔?

사람들이 인상 쓰고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마음을 열고, 나도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쓰레기 산 주변에서 수업을 하면 분명 우리도 오염된 환경에 노출 될 텐데...

정원

시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웃으면서 대해야 할지, 슬프게 대해야 할지... 웃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해요.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꼭 제공되어야 하는 환경이라는 건 확실해요.

그냥 그곳 사람들이라고 특별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처럼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웃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화영

강호

사실 쓰레기 산이 생각보다 작았어요. TV에서 볼 때처럼 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과연 그들은 스스로의 의지로 이곳에 살게 된 걸까요? 아이들은 본인의 의지로 쓰레기 산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아직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어려운게 아닐까요? 전 발록 활동에 대해 점점 기대되고 있어요. 이곳에는 단순히 교육뿐만 아니라 그들의 수익 원을 대체해 줄만한 대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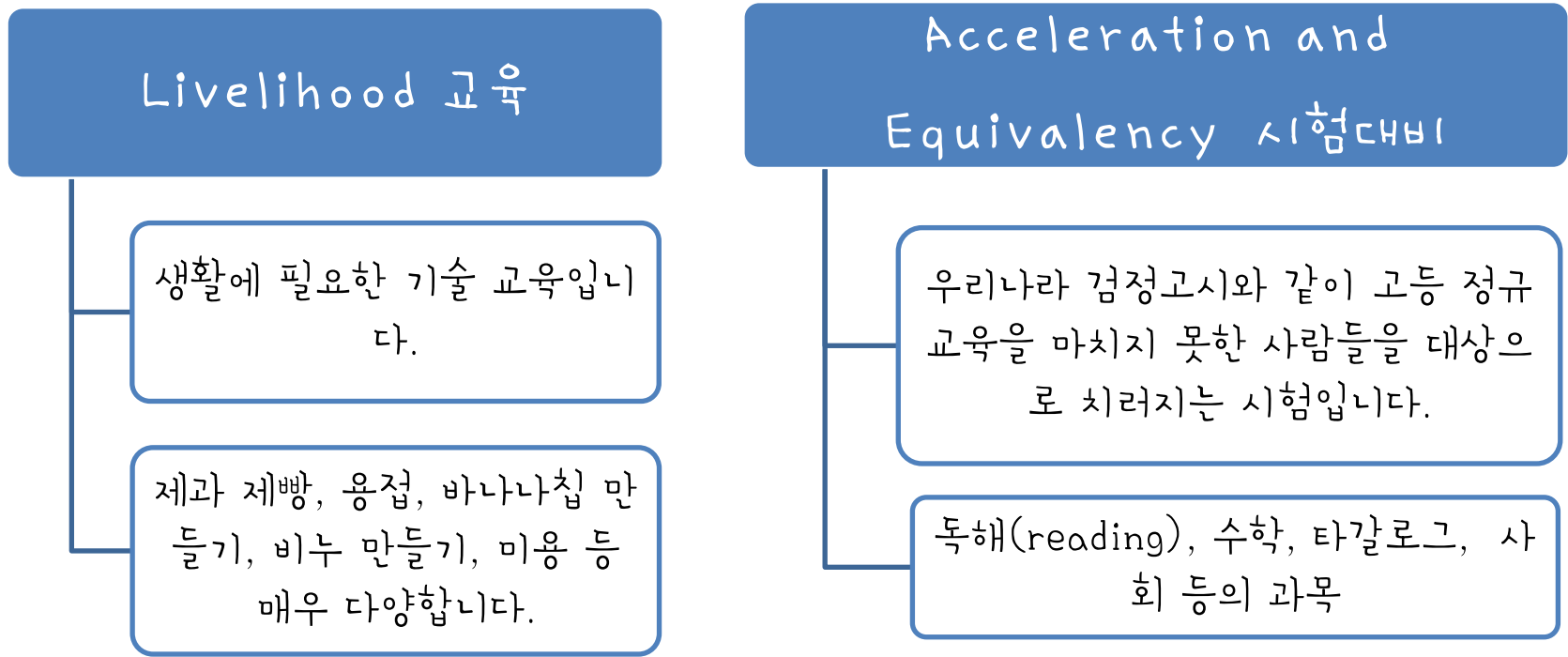
의주

ALS 란?

ALS 는 (Alternative Learning System)의 약자로, 정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산파블로시티 YMCA는 발록커뮤니티에서 ALS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LS 프로그램은 livelihood 교육과 Acceleration and Equivalency 시험 대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록 커뮤니티의 희망

우리가 발록에서 본 희망은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이곳에서는 쓰레기를 주 수입원으로 삼지 않고 대안적인 방법으로 자립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봉 산업이 활성화 되어 있으며, 지난 라온아띠 6기가 조직한 Nanay그룹 (어머니 그룹)은 ALS의 livelihood 수업의 일환으로 바나나 칩 만들기를 배워서 이를 이용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되는 사업보다 저희가 발견한 더 큰 희망은 학생들의 재능입니다. 기타를 능숙하게 치는 빌리, 멋진 노래를 선보였던 지미, 춤을 잘 추는 이안,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다른 청소년들을 돕고 싶어 하는 따듯한 마음의 자노 등등... 주어진 환경이 열악하다고 재능마저 메마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고민 1탄

#1

'감정' 이라는 주제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각자 자신들의 부정적인 감정들, 긍정적인 감정들을 나눕니다.

타갈로그어로 진행되기에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라서 신나게 즐겼지만, 그래도 자유로운 토론 방식의 수업이 보기 좋습니다.

외로울 때의 자신의 표정, 그리고 행복할 때의 표정을 그려보는 활동도 합니다. 라온아피 단원들도 활동에 참여해야죠. 다들 열심히 자신들의 표정을 그립니다. 드디어 발표의 시간!

필리핀 팀의 아름다운 여성단원이 일어나서 자신이 그린 그림을 설명합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걸로 푸는 경향이 있어요 ㅠㅠ"

"..."

뭔가 분위기가 싸~한 게 실수했다는 축이 옵니다. 뭘까요. 대체 아름다운 여성단원은 뭘 잘못 말한 걸까요.

발록의 학생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먹을 음식이 충분하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을 때 대신 손톱을 깨무는데요..."

HUL... 민망해진 아름다운 여성단원은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때 어떤 사람들은 죽도록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래도 조심했어야 했는데...

근데 어디까지 말조심을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의 고민 2탄

#2

아름다운 여성단원이 또 발록 커뮤니티의 수업에 갑니다. 조심조심 입 조심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번엔 학생들과 한 명씩 짝을 이뤄 자신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훗칠한 청년과 한 조가 된 아름다운 여성단원. 타갈로그-영어-한국어라는 높디높은 언어의 장벽을 넘으며 서로의 깊은 감정에 대해 공유합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느낍니다. 서로 솔직한 내면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층 훗칠한 청년이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청년이 묻습니다.

"취미가 뭔가요?"

"취미요? 산책이요... 요새 아침마다 호숫가를 산책하고 있어요."

청년은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요? 저는 아침마다 쓰레기장을 산책해요. 걷는 거 좋아하시면 언제 한번 오세요."

HUL... 이걸 진심일까요, 놀리는 걸까요, 비꼬는 걸까요? 아침에 상쾌하게 아름다운 호숫가를 조깅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침부터 쓰레기장을 돌면서 일하는 청년이 있는 게 현실이겠죠. 그래도 이런 말을 조심해야 하는 거겠죠? 어디까지 말을 해야 되는 걸까요? 가이드라인은 없나요?

마미의 조언

말할 때마다 조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문화적 차이에서 온다고 볼 수 있고, 발록 학생들도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포용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요, 아름다운 여성단원이여.

Bagong Pook *Elementary School

Bagong Pook !새로운 삶의 현장을 만나다!

산파블로YMCA는 라온아띠 6기와 함께 San Pablo City 교육부의 'adopt a school program' 의 일환으로 Bagong Pook Elementary School과 연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카노사 컬리지, 시엠아즈가라데 초등학교, 바공포옥 초등학교 이 세 공립학교 중 시엠아즈가라데, 바공포옥 초등학교는 학교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시설 면에서도 아이들이 따로 운동장이 없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고 교과서도 현저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학교는 재정상태가 어려워 최소한의 학교운영비를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적 지원이 힘들다고 합니다. 교장선생님과 마미크리스티는 우리에게 이곳에서 정규수업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가정환경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 대한 대안교육을 원하셨습니다. 이에 4월10일~5월18일까지 학교 방학 기간 동안 매일 오전 이곳에서 저희의 교육프로그램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안산 석수골 작은도서관의 지원과 산파블로 시티YMCA의 지원을 토대로 이곳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찾아 해결해나갈 것입니다.



아이들과의 만남 & 첫 프로그램



두 번째 방문에서 저희의 첫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저희는 " 한국적 요소가 들어가도 될지?, 그들의 문화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 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Mommy와 교장선생님께서서는 아이들이 오히려 다양한 교육방법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이자 외국인에게 교육받는 자세로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경을 쓰되 이번만큼은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고민은 대상자인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해야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의 올챙이 송을 타갈로그어로 번역하여 춤과 노래를 통해 개구리의 진화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는 세계 어디를 가든 천진난만하고 개구쟁이인 아이들의 특성은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석수골 도서관과 시엠아즈가라데 초등학교의 아이들 역시 그 생각이 맞았지만 이곳 아이들은 따로 관리해주시는 선생님이 없어서 인지, 저희의 능력부족일 수도 있지만 정도가 심한 짓궂은 장난과 산만한 태도, 서로 싸우는 모습 등 그 정도가 조금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자유로운 교육 분위기도 좋지만 프로그램 진행 시 맺고 끊는 수업의 틀,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수단, 수업 진행 시 지켜야 할 규칙 등 전반적인 틀이나 규칙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 중에는 신경이 쓰이는 아이, 천식이 있는 아이, 남자, 여자 아이들의 특성 등 다양한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의 총체적 교육만족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 기획 시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방법이 정답이지만 그것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교육에 대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민감하게 신경 쓰고 최대한 아이들에 대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Bagong Pook education proposal

우리는 4월 10일부터 5월 18일까지 여름방학 기간 중 주 5일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학교 측에서 원하는 교육은 아이들이 정규수업에 대해 흥미를 갖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영어와 수학과목에 예체능을 접목하여 아이들과 학교의 교육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Recognition & Graduation & Graduation Party

우리는 운이 좋게도 바공포옥 초등학교의 시상식, 졸업식, 졸업파티에 초대받아 필리핀 학교행사에 대한 문화경험을 할 수 있었고 우리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 Recognition

우리나라와 다르게 필리핀 졸업문화는 이틀에 걸쳐 진행됩니다. 첫날은 전교생에 대한 Recognition 수여식이 열립니다. 같은 내용의 상이라도 수상자 모두에게 수여되기 때문에 꽤 긴 시간 동안 진행되는 점과 대표자 수여가 아닌 전교생 모두가 모두에게 축하를 받는 점, 수상 받은 상들을 마지막 퍼포먼스로 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부모님께 드리는 점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저희가 자원 활동 할 곳에 단지 초대받았다는 생각에 참여를 했지만 무대 중앙에 저희 자리가 마련돼 있고 저희가 상을 수여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시작한 것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저희가 이래도 되는 건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었지만 팀원들과 토의하여 그들이 특별히 베풀어 주는 것에 감사하며 좀 더 책임감을 갖고 활동에 임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 Graduation & Party

졸업생들은 모두 흰색 졸업복 의상을 착용하고 모두에게 축하를 받고 Recognition과 마찬가지로 일일이 모두에게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자신의 부모님과 선생님들께 졸업생 모두가 노래를 부르며 감사 퍼포먼스를 하는 점은 우리나라 졸업문화와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녁에는 모두 파티의상으로 갈아입고 함께 파티를 즐겼는데 저희도 초대를 받아 그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색다른 필리핀 문화경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다가와 정중하게 같이 춤추자는 말에 처음에는 적잖이 부담이 되고 놀랐지만 이내 모두 이 문화에 매료될 수 있었습니다. 건전하게 졸업생들과 선생님들이 서로 축하하는 모습에 우리나라 졸업문화가 꼭 배워야 할 점이라 생각되었습니다.



Sir Chris의 Fun E&T

아직도 영어가 두려우십니까?
타갈로그어가 어려우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몬테소리 스쿨(Montesory School) 최고의 강사인 **Sir chris** 의 Fun E&T 가 있습니다!
10년 전통의 품격 있는 강의가 당신을 찾아갑니다.
YMCA 사무총장 Mommy Kristy가 인정한 **Fun E&T**, 지금 만나보세요!

P모씨 (25세, SanPablo City 거주) : 영어로 필리핀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는 게 부담감이 컸었는데 Fun E&T를 듣고 나서 부담감이 싹! 사라졌어요. Fun E&T 최고예요!

T모씨 (22세, SanPablo City 거주) :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어떻게 영어를 가르쳐야 할 지 너무 막막했어요. 하지만 Sir Chris의 영어수업을 듣다보니 아이들이 좋아할 수업에 대한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Fun E&T 정말 좋아요!

Mommy Kristy가 선택하고 라온아피가 극찬한 바로 그 강의!
지금 전화하시면 기타 레슨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전화 폭주 중! 서두르세요!
Tel) 00000000000



필리핀 바라보기

✓ 필리핀에서 인주의 하루



필리핀에서 의주의 하루

|_ AM7:00 매직 사랍

피델라오~동이 트기 전부터 옆집 친구들인 닭들이 울기 시작한다. 필리핀에 와서 안건데 원래 닭들은 시도 때도 없이 우나 보다. 어쨌든, 아침 일찍 일어나 옆집 알마언니와 같이 아침 준비를 하니 상쾌하 구만. 오늘의 아침은 필리핀 사람들이 즐겨 먹는 PANDISAL이란 모닝 빵과 볶음밥! 알마언니를 도와 볶음밥을 만드는데 나의 로보트 태권V 레이더망에 걸린 것은! 조미료! 뜨헝. 볶음밥에 조미료를 넣다니. 경악하는 나와 달리 늘상 있는 일인 듯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거리낌없이 조미료를 푹푹 쏟아 붓고 있었다. 궁금한 건 못 참는 의주, 조심스레 '알마 언니, 이건 뭐에요?'

필리핀은 모든 음식에 '매직사랍' 이라는 것을 넣는다고 한다. 마술 같은 맛이라는 의미의 조미료인데, 볶음밥에도 넣고 국에도 넣고, 반찬에도 넣는다. 참 신기한 게 같은 조미료를 쓰는데 맛은 다 다르다. 건강에 해가 가지 않을 정도만 넣는다고 하는데 요거요거 참 신비로운 맛이 난다.

|_ ~8:00 '분소 퍼스트' 문화

분소먼저! '분소'란 타갈로그어로 막내를 뜻한다. 우리나라엔 장유유서 문화가 있다면 이곳은 막내먼저 먹는 식문화가 있다. 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문화인 듯하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막내인 뽀옹이(화영) 먼저 자기 접시에 밥을 덜어 먹는다. 그 다음 분소는 나! 아싸~분소는 아니지만 두 번 째여서 다행이다. 맛있는 거 먼저 덜어놔야지~♪

|_ ~8:10 필리핀 대중교통 트라이시클

오늘의 스케줄은 아침 일찍 SAMPALOC 호수에 가서 마을을 이끌어가는 분들과 같이 나무 심기를 하고 BAGONG POOK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미팅을 한 후 일주일 간 집에서 먹을 일용할 양식을 사러 마트로 가는 것. 노랑이 단복을 빼 입고 트라이시클이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오토바이에 지붕이 있는 작은 리어카(?)를 옆에 달고 다니는 트라이시클은 이곳 서민들의 대중교통 수단이다. 우리나라처럼 에어컨이 나오는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지만 이용요금이 너무 비싸기에 대부분의 서민들은 원거리를 이용할 때 버스를 제외하곤 트라이시클과 지프니를 타고 다닌다. 트라이시클은 거리와 사람 숫자를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되는데 기준은 한 사람당 8페소이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240원 정도면 이 멋진 개인용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이 신기한지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트라이시클 아저씨와 트라이시클이 신기한 우리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시청으로 고고!



▶ 지프니와 트라이시클

|_ ~12:30 이것이 바로 필리핀 스파~일!

나무를 심으러 시청을 들러 호수로 갔다. 행사가 끝나고 경찰들과 지역 청년들의 초청으로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을 수 있었다. 우와~~~입이 떡 벌어지게 정말 큰 한 상이 차려졌다. 포크와 숟갈도 없고 접시도 없었다. 아주 넓고 기다란 바나나 잎에 밥과 닭조림, 딜라피아 생선을 얹혀놓고 스프링 롤과 같이 먹는 음식이었다. 이것이 바로 필리핀 스파~일! 우리는 휘둥그레지는 눈을 진정하고 팔을 걸어 부치고 맨손으로 밥을 먹기 시작했다. 일하고 나서 먹는 밥이라서 그럴까, 아님 손으로 먹는 밥이라서 그럴까?

정말 꿀맛 같았다. 생선도 손으로 발라 먹고 제각기 따로 노는 밥알들도 손으로 먹었다. 처음엔 너무 어려워서 손 까

지 입안에 다 들어가 버렸다. 옆에서 보기가 안타까우셨는지 친절하게 요리 조리 시범을 보여 가며 설명 해주시는데도... 어렵다. 아무리 잘 먹으려고 해도 밥알이 손에서만 나뉘군다. 에잇! 뭘 어떻게 먹든 손으로만 먹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라고 마음 먹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먹는 모습을 보고 빵 터지고 말았다. 저쪽 끝에서는 이미 다 먹고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꿀맛 같은 점심에 계속 집중을 했다. 이제부터 손을 이용해서도 잘 먹을 수 있다!



|_ ~13:00 백만불 짜리 흰 이

두두두두두두두두~ 트라이시클이 내는 소리와 함께 바공푹 초등학교에 도착하고 처음 만나는 교장선생님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눈다. 필리핀에 도착할 때부터 느끼건데, 이 나라 사람들은 참 친절하다. 어딜 가나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넨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 길을 지나 다닐 때에도 헬로~하이~하며 손을 흔들어주는데 나중에 한국가면 어디선가 헬로~하는 환청이 들릴 것만 같다. 언제나 백 만불짜리 흰 이를 드러내면서 인사를 해주는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면 필리핀의 더운 날씨는 싹 가시고 너스레 웃음이 절로 난다. ㅎㅎ



|_ ~14:30 사양, 남기면 안돼!

아이쿠, 교장 선생님이 마미랑 타갈로어로 대화할 동안 잠시 딴 생각했는데 눈앞에 도시락이 놓여져 있다. 오잉? 점심을 먹은 지 채 두 시간도 안됐는데^^; 도시락은 코코넛 롤이라고 했다.

우와! 역시 필리핀은 과일로도 음식을 만드는구나!
한껏 기대에 부풀어 소스와 함께 숟갈 가득 떠서 먹
었는데...음~ 이 이상야릇한 맛은 뭐지? 이미 다들
한 숟갈 씹 떠서 먹은 상태였고 다들 이 신비로운 맛
에 더 이상 스푼을 도시락에 가져가고 싶지 않았다.
현지인 맛에 너무나 잘 맞는 우리의 짬타이거 정원
이와 화영이만 빼고. 우리가 그렇게 기대한 코코넛이
이런 맛이라니..모 음료회사의 코코팜은 완전 거짓부
렁이었다!

필리핀 문화엔 '사양' 이라는 것이 있다. '사양'
은 남기다, 혹은 아깝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시간을
낭비할 때, 쓰레기를 낭비할 때 등에 사용된다.

빈부격차가 아주 심한 이곳은 음식을 남기지 않고 감사하게 여기며 남기지 않고 모두 먹는 것을 미
덕으로 삼고 만약 음식이 남게 되면 이웃집이나 가족 등 가까운 사람에게 주는 관습(?)이 있다. 하
지만 이미 내 접시에 있는 음식에 손을 대면 자기 그릇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다. 속에서 받아주지
않는 음식을 먹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래도 우리는 완.전.쌉.다 비웠다. 음식을 남기지 않
는다는 건 환경적으로나 음식을 만들어준 분에게나 개인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정말 좋은 습관인 것
같다.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사양문화는 내 생활에 계속 남을 것 같다.



|_ ~15:00 바른 생활 하게 되는 길거리

맛있는 점심과 두 번 째 점심 같던 간식을 먹은 우리는, 불어오는 배를 임산부처럼 부여잡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사러 마트로 이동! 시내에 인접해 있는 곳이라 걸어가는데 트라이시클과 지프니가 길 거리를 가득 메워 건너기가 무섭다. 오랜만에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운 바른생활이 떠오르면서 자연스레 손을 머리위로 put your hands up! 하지만 필리핀은 다르다! 머리 위가 아니라 가슴 앞으로 손을 내밀면서 스탑(stop)의 제스처를 취해야 한다. 아하! 길 건널 때까지 손을 안 내리면 된다.

|_ ~ 17:30 마트는 다국적 기업의 천국이었다.

커피를 너무 사랑하는 내가 커피코너에 가서 본 것은 커피코너를 가득 메운 네슬레. 필리핀 산도 있었지만 아주 소량이었고 마미조차도 지역산이 아닌 다국적 기업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듯 했다. 커피 뿐 만이 아니라 모든 제품이 다 그렇다. 특히 식료품이 더욱 심했는데 조금 걱정스러울 정도였다. 필리핀의 먹거리 운동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을까? 어쨌든! 우리는 한국보다 물가가 훨씬 싸 이곳에서 돈의 개념이 점점 사라짐을 느낀다. 과자도 500원이면 짱 큰 봉지를 살 수 있다. ㅎㅎㅎ. 장보기가 끝나고 트라이시클을 타고 집에 오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었다. 다시 저녁 먹을 시간. 시간이 왜 이렇게 정신 없이 빨리 가나 모르겠네. 가끔씩 청양고추를 송송 썰어 넣고 감자와 각종 해물을 넣은 구수하고 칼칼한 된장찌개가 그리지만 필리핀 음식도 점점 적응해 가고 있다. 날씨가 너무 더운지라 짠 음식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이제는 싱거우면 밥을 먹는 것 같지가 않을 정도로 적응이 되어 버렸다. 밥을 먹고 난 후 먹는 망고는 정말 천국 같은 맛이다. 아 빨리 같이 저녁준비 하고 우리의 닫는 나눔을 준비해야지! 일기 끝~!

필리핀에서 한 달을 보내며..

✓정원이 생각

✓강호 생각

✓화영이 생각

✓시연이 생각

✓의주 생각



정원이 생각

정원 : 합격 발표가 나고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국내 훈련에 참석했습니다. 매 순간 순간이 충격의 연속이었고 뇌리에 크게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무거워진 머리를 이끌고 지역 NGO 인턴쉽에 참가했습니다. 머리가 무거워서 그랬을까요? 회의 시간은 길어지고 서로 감정적으로 변해갔지만 정작 행동은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그에 대해 크게 지적을 받고 NGO 인턴쉽을 끝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도착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고민과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고개가 숙여집니다. 수많은 고민과 생각을 머리 속에 품고만 있었지 그것을 확인하고 해결하는 데에는 소극적이었던 같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5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과제만 하기에 급급하다 지나가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듭니다. 벌써 한 달이 가버렸네요. 내 문제를 확인하는 한 달을 보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한 달간의 활동을 마무리 하면서 "또다시" 되뇌입니다.

"百文而 不如一動!(백문이 불여일동!)"
백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낫다!

강호 생각

이제는 땀으로 옷을 세탁하는 것도, 비누칠하고 물이 안 나와 당황하는 것도, 씻으면서 땀이 나는 것도, 새로운 음식을 매일 먹는 것도, 조급해 하지 않는 것도, 인터넷이 없어 생활의 재미를 찾는 것도, 눈빛만 봐도 눈치껏 아는 것도, 부족한 언어실력 덕분에 손짓, 몸짓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의사소통하는 것도 모두 내 생활이 되었습니다. " 불편함에 익숙해져라 " 라는 말을 몸소 체험해 보니 처음엔 적지 않게 당황스러웠고 실제로 불편했지만 처음 느꼈던 불편함은 사라지고 이 생활에 익숙해져갑니다. 이 안에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채우려하며 필리핀 문화에 적응해가는 제 자신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처음 만날 때와는 너무도 다르게 못 볼까까지 다 본 우리 멤버들, SPC YMCA 우리 엄마 Mommy Kristy, 바탕Y 멤버 제프리, 버니, 움스, 조마크, 우리집 큰엄마 Emy, 옆집 Alan형, Alma누나네 가족들 모두 필리핀에서 새로운 가족이 너무 많이 생겨서 심지어 한국 집이 생각 안 날 정도입니다.



필리핀에서 제 이름은 Paul입니다. 타갈로그어로 Pablo! 저는 San Pablo 에 사는 Pablo입니다. 이름 기막히게 지어준 안산에서 타갈로그어 가르쳐주신 안나마리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한 동 정도의 크기의 이 곳에서 한국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것은 제가 어디를 돌아다니든 Kuya(형, 오빠) Paul!! 이라는 말을 진짜 너무 많이 듣습니다.

너무도 반갑게 웃으며 인사해주는 그들에게 너무도 고맙습니다. 내가 배우고 느낀 것들을 그들이 필요한 곳에 공유하고 찾는 것이 처음엔 부담감이 컸습니다. 어디를 가든 저희에 대한 원대한 환영과 가장 좋은 것을 하고 있는 저 자신에게 이것이 아시아 양아치이고 정말 이 보답을 어떻게 할지 부담이 너무도 컸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클까 하며.. 그런데 이 부담감이 이제는 긍정적인 책임감으로 변해갑니다. 많이 부족한 저지만 이 자원 활동 속에 무엇보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시키는 일이 아닌, 나쁜 욕심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원하는 일인 자세입니다.

이 자세를 갖고 다음 달에는 완벽한 Philippino가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내 인생의 필리핀 자원 활동 첫 달! 많은 편견과 고정관념이 바뀌며 글이 아닌 몸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화영이 생각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난 정말 **잘난 사람**이었어. 아니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내가 없으면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

이 곳에 오니 난 아무것도 아니었어. 영어를 못하는 나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어. 때론 나의 **단점**을 노골적으로 지적 받기도 했지. 그제서야 나는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어. 그래 나 혼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혼자서 아니잖아? 함께한 라온아띠 단원들과 우리를 도와주고 함께하는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

트라이시클을 타고 거리를 달릴 때에도 후식으로 나온 망고를 먹다가도 길거리에서 아무렇게나 뛰어다니는 닭을 보면서도 저녁 지는 놀을 보면서도 '여기가 **천국**인가?' 하는 생각에 잠기곤 해. 때론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것마저도 사치인 듯 하지. 나에게 이런 행운이 찾아온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해. 이제 4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아쉬워. 정말 이 생활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미안할 정도로 좋아.

하지만 한편으론 이렇게 행복한 내가 죄스럽기도 해. 돈이 없어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풍족하게 살면서도 불만만 가득했던 나의 삶을 **반성**하게 돼.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나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놓쳐왔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 내가 이 곳에서 마냥 행복하기만 해서는 안될거야.

지금까지 내가 주어진 것을 따라갔다면 이제부터는 좀 더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질문하고 자발적으로 비판하고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싶어. 이제 **시작**이야!

시연이 생각

도마뱀 우는소리 들어보셨나요? 저는 도마뱀이 운다는걸 얼마 전 처음 발견했답니다. 마술사 모자에 서 비둘기 대신 닭이 나오는 모습 혹시 보셨나요? 아니면 물이 안 내려가는 변기를 붙잡고 바가지로 열심히 물을 퍼 나른 적은요? 필리핀에서의 한 달은 세상에서 처음 해보는 경험 투성입니다. 이래 보기도 여기저기 많이 싸돌아 다녔다고 생각했었는데, 모든 게 상상 그 이상입니다.

기대하지 말라는 말을 훈련 내내 들어놓고도, 한 가득 기대를 안고 필리핀에 발을 디뎠던 날... 왜 아무리 기다려도 따듯한 물은 나오지가 않을까요? 방은 발 디딜 틈도 없이 작은 방에 매트리스가 3장 나란히 깔려있고, 저놈의 정신 나간 닭들은 밤낮을 모르고 울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결국 날으는 특대왕바퀴벌레를 보면서, 어이가 없어서 웃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오는 멘탈 붕괴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상도 하지요. 이렇게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열악한 환경인데, 필리핀에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잠도 잘 오고, 식욕도 샘솟고, 심심할 겨를이 없이 항상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면 반갑게 인사해주는 동네 사람들, 우리를 항상 걱정해주시는 두 분의 엄마들,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바탕와이, 언제나 해맑은 웃음으로 우울했던 기분까지 싹 날려버리는 옆집 아이들, 한 달쯤 되니 다들 정신 놓기 시작한 우리 단원들까지... 사람인지라 가끔 우울하고 괜시리 짜증이 나다가도, 항상 저를 보고 웃어주는 사람들을 보면 마주 웃게 됩니다.

사실 국내훈련 때부터 내내 저를 괴롭혔던 질문은 "과연 이게 내가 잘 한 선택일까?" 였습니다. 남들보다 늦은 졸업, 소중한 것들 전부 남겨놓고 훌쩍 떠나는 것이 과연 행복할까 싶었어요. 그런데 5개월 여정 중 아직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이미 이것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아, 정말 잘 왔다! 사랑한다 필리핀!!

의주 생각

라운아피라는 이름으로 한 달을 살았지만, 솔직히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머리보다 생각이 먼저 반응해야 할 때가 많아서 당황스럽고 불편했던 적도 있었지만 신선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이 아닌 곳에서의 삶은 지난 22년 간 편리하게만 살아왔던 나의 삶들을 반성하게 합니다. 물을 물 쓰듯 펄펄 쓰던 편리했던 한국생활과 달리 화장실 물 내리는 것조차 힘든 필리핀. 그러나 나는 편안합니다. 편리가 아닌 편안한 필리핀 생활 속에서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를 발견하고 머리가 아닌 내 마음에 내 행동을 맡깁니다. 가끔은 한바탕 신나게 놀고 집에 돌아온 후 깊은 사색에 잠기곤 합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의주만의 '천국' 이라고 불리는 앞마당 작은 벤치에 앉아 사치스러운 여유를 즐길때마다 팀원들은 재가 소진이 온 게 아닌가 장난스런 걱정을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일조차 즐거움 가득 합니다. 한 달이라는 적응 기간 속에서 당연한 것을 한 번 더 당연하지 않게 생각해보기도 하고 때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있는 힘껏 필리핀을 즐기고 있습니다. 라운아피를 뭐라고 정의를 내리긴 어렵지만, 하나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이 활동이 그저 내게 주어지는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주는 활동이라는 것을.

눈부시게 쏟아지는 여름 날의 햇살을 받으며 창문을 열면, 화려한 햇살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환한 미소를 머금은 옆집 꼬마들이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사람을 본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는지 나는 처음 알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곳에 반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말처럼, 삶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어서 진지한 표정으로 거론할 수 없는 그런 하찮은 것이 아닌가 봅니다. 오늘도 나는 화장실에 배어있는 적당한 냄새를 맡으며 저절로 헤벌레 웃음이 나오게 하는 필리핀 사람들과 신나게 온몸을 땀으로 흠뻑 적실 준비를 합니다. 5개월 후의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을 그리며, 밖에 나가 외치지요. **안녕하세요 필리핀씨!**

©본 보고서는 라온아띠 7기 필리핀팀이 작성한 것이며 저작권 또한 라온아띠 7기 필리핀팀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으로 외부에 도용할 것을 거부하지만 라온아띠에 관심을 가지는 분이시라면 언제나 어디서나 사용하셔도 됨을 허락합니다.

편집자 : 신의주 이화영

글 : 이강호 김시연 송정원 신의주 이화영

그림 : Jek 송정원

사진 : 신의주 이강호 이화영 마미크리스티